영어어문교육 *제20권* 1호 2014년 봄

영어교육 분야에서 수행된 인지적 · 정의적 학습자 변인에 대한 연구*

김 경 자
(조선대학교)

Kim, Kyung Ja. (2014). Studies on learners' cognitive and affective factors in EFL educa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0*(1), 261-285.

This study reviewed the research studies on cognitive and affective factors in EFL education in an attempt to provide future directions in this research field. For the study, a total of 61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from 1995 to 2013, were reviewed and analyzed in terms of research subjects, topics, and methodology employed in the studies. Each of these classification criteria had their own subcategories describing each research study.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35(57%) research studies involved college level students as study participants, while only 5(8%) studies examined the cognitive and affective factors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2) 45(74%) studies focused on the examination of L2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 in relation to other variables; and 3) 58(95%) studies were identified as empirical research, while 40(66%) of them mainly utilized 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with much fewer qualitative and mixed methods.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sugges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on the cognitive and affective factors in L2 learning and teaching were provided, in company with the limitation of the present study.

[L2 cognitive and affective factors/research subject/research topic/research methodology, 제 2언어의 인지적 · 정의적 요인/연구 대상/연구 주제/연구 방법]

I. 서론

외국어 학습 속도와 성공 정도는 학습자의 인지적 · 정의적인 차이점을 포함하는 학습자 변인에 기인한다고 한다(Ellis, 1994). 학습자 변인에는 성별, 지능과 같은 선천적인 요인 외에 학습자마다 다른 학습 유형(style), 특정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상황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가 사용하는 전략(strategy)등의 인지적 요인과 학습자가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며, 믿고,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관련된 정의적 요인이 있다. Brown(2007)은 정의적 요인을 학습자 내부에 존재하면서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요인(eg.,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의지, 모험 시도, 불안, 외향성, 동기, 감정 이입)과 학습자가 제 2언어 뿐 아니라 제 2문화를 배울 때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인 변인(eg., 태도, 사회적 거리)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재분류하였다.

일관되고 다소 영구적인 한 개인의 특정 성향을 가리키는 학습 유형은 Myers(1962), Reid(1987) 등에 의해 학습 유형 분류 체계가 제시되고 측정 도구가 마련되면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되었다. 학습 전략은 어떤 문제나 과업에 접근해 가는 방법 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어떤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해 계획된 구상(Brown, 2007)을 지칭하는데 O'Malley와 Chamot (1990), Oxford(1990) 등이 외국어 학습 전략의 분류 체계와 측정도구를 개발한 이후 외국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전략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물론이고, 학습 전략과 다양한 학습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은 그 방향이나 정도에 따라 외국어 학습에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외국어 발화에 대한 불안감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 의지가 높을수록, 제 2언어나 제 2언어 원어민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외국어 학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 환경에서 느끼는 다양한 정의적 변인 중 특히 학습 동기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강조되면서 외국어 학습 동기는 학습과 관련한 수많은 연구와 문헌(eg., Dörnyei, 2009; Gardner, 1985)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국내 영어교육 연구 전반에 걸쳐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연구(권오량, 1995; 김진완, 2004), 초등영어교육 연구 방법의 변천 연구(김정렬, 2001), 코퍼스 기반 연구(이은주, 2008), 읽기 또는 쓰기 연구의 경향과 성과(송민종과 임정완, 2010; 송희심, 2000; 조정순과 선효승, 2007) 등이 있다. 따라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지적 · 정의적 학습자 변인 분야에서도 연구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동일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관찰의 대상,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에 따라 다른 연구 결과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의 인지적 · 정의적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연구 방법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관련 주제의 연구자와 영어교육 현장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최근 20년 간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지적 · 정의적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변인에 대한 연구들을 연구 대상과 주제 및 연구 방법론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연구 경향과 성과를 분석하여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연구의 향후 방향성을 탐색하여 학습자의 인지적 · 정의적 변인에 대한 연구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 영어교육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영어어문교육(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에 게재되었던 연구 논문들이다. 1995년 창간된 *영어어문교육*은 2005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로 인정을 받아 학술지의 질적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며, 2014년은 학술지 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영어교육 학술지로서의 질적 제고와 국제학술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95년 창간호부터 2013년 19권 2호까지 출판된 총 628편의 논문 중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 정의적 변인들을 주제로 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각 논문의 제목 또는 핵심어에 학습유형, 전략, 불안, 동기, 의사소통 의지, 감정, 태도, 효능감, 신념 등 인지적 · 정의적 변인이 포함된 논문은 총 61편이었으며 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 방법

61편의 논문을 먼저 크게 연구 대상, 연구주제, 연구 방법론의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4개 범주(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상)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하나의 논문이 둘 이상의 연구 대상 범주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의 숫자가 더 많은 대상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는 각 논문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주제들을 분류하였다. 학습 유형, 학습 전략, 불안, 동기, 태도, 기타(신념, 자기효능감, 감정, 정의적 요인)의 6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주제에 단 한 편의 논문이 관찰된 경우 이를 기타 범주로 분류하였다. 하나의 논문이 2가지 이상의 주제를 연계하여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명시한 연구의 목적에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판단되는 주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찰은 먼저 이론적 연구 방법과 실증적 연구 방법으로 구분하고, 실증적 연구 방법은 다시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혼합 연구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양적, 질적 이분법적 분류는 연구 방법론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한 지나치게 단순한 분석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김정렬(2001), 김진완(2004), Johnson(1992)의 연구를 참조한 조정순과 선효승(2007)의 연구 방법론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문헌연구, 조사연구, 개발연구, 분석연구, 상관연구, 실험연구의 6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연구 유형을 고찰하였다. 한 개의 논문이 둘 이상의 연구 유형 범주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연구의 주 목적을 달성하고자 실행된 연구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분석 기준별 연구 현황

1) 연구 대상에 의한 분류

표 1은 총 61편의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문헌연구로 분류된 3편을 제외한 58편의 실증 연구를 연구 대상별로 분류한 것이다. 대학생 이상의 연령층에 대한 연구가 과반수가 넘는 35(57%)편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각각 8편(13%), 10편(16%)이었으며, 초등학생 대상 연구는 5편(8%)이었다.

2) 연구 주제에 의한 분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6개의 연구 주제 범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영어 학습 전략 연구로 총 연구의 43%(26편)였으며, 그 다음으로 동기 연구가 31%(19편)였다. 이는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변인 연구의 2/3이상이 학습 전략과 동기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습 유형, 태도, 불안 연구는 각각 3편, 4편, 5편으로 총 연구의 20%였다.

3) 연구 방법론에 의한 분류

61편의 연구들의 연구 방법을 고찰해본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3편(5%)의 이론 연구를 제외하면 모두 실증 연구(58편, 95%)로 분류되었다. 실증 연구 안에서는 양적 연구가 과반이 넘는 40편(66%), 질적 연구가 12편(20%),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한 혼합 연구가 6편(10%)이었다. 연구 방법을 6개의 유형으로 분류 하였을 경우에는, 문헌연구 3편(5%), 조사연구 7편(11%), 개발연구 2편(3%), 분석연구 14편(23%), 상관연구 24편(39%), 실험연구 11편(18%)으로 인지적·정의적 학습자 변인에 대한 연구는 상관연구가 가장 빈번하게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1

분류 기준 별 인지적 · 정의적 변인에 대한 연구 현황

분류기준	범주 및 분포		
연구대상	초등학생: 5편(8%)	중학생: 8편(13%)	
	고등학생: 10편(16%)	대학생 이상: 35편(57%)	
연구주제	학습 유형: 3편(5%)	학습 전략: 26편(43%)	불안: 5편(8%)
	동기: 19편(31%)	태도: 4편(7%)	
	기타(신념, 자기효능감, 감정, 정의적 요인): 4편(7%)		
연구방법	이론연구: 3편(5%)		
	실증연구: 58편(95%)	양적연구: 40편(66%)	
		질적연구: 12편(20%)	
		혼합연구: 6편(10%)	
	연구유형	문헌연구: 3편(5%)	조사연구: 7편(11%)
		개발연구: 2편(3%)	분석연구: 14편(23%)
		상관연구: 24편(39%)	실험연구: 11편(18%)

2. 연구 대상별 분류

표 2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61편의 논문 중 문헌연구 3편을 제외한 58편의 실증 연구를 연구 대상 별로 구분한 것이다. 연구 대상 별 연구 주제의 동향을 고찰하기 위해 연구 주제를 함께 범주화하였다.

1) 초등학생 대상 연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5편으로 연구주제는 학습 전략(3편)과 동기(1편), 자기효능감(1편)이며, 5편 모두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Unkyoung Maeng(2006)은 영어 능숙도에 따른 듣기 전략의 사용에 대한 상관연구에서 능숙한 학습자는 보상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인지 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Ji-Sun Kim과 Byung-Bin Im(2009)은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영어 동화책 활용이 학습자의 흥미, 자신감, 동기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강성우와 하주영(2005), 이혜원과 임희정(2012)은 실험연구에서 영어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보충지도를 한 후 각각 자기효능감의 개선 효과와 읽기 능력 향상도를 측정하였다. Kyung-Bin Im(2010)은 엄마-아이 사이의 영어 동화 읽기에서 엄마가 아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하는 전략을 고찰하였다.

초등영어 수업이 듣기, 말하기 위주의 음성언어 중심인데 반하여 말하기 불안, 동기 등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이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초등의 음성언어 중심 수업이 불안감을 초래할 정도로 강압적이라기 보다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흥미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또한 초등학생은 자신의 인지적 · 정의적 속성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고, 연구자 입장에서도 미성숙한 그들의 인지적 · 정의적 속성을 측정하는데 어려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 따를 수 있다. 초등학생 대상 연구 5편 중 2편이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으로 사례연구나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자료수집의 한계점을 입증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에 따른 영어교육의 연계성 측면에서 초등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조정순과 선효승, 2007).

표 2

연구 대상 별 분류

연구대상 (논문 수)	연구주제 (논문 수)	연구
초등학생 5(8%)	전략(3)	이혜원과 임희정(2012); Kyung-Bin Im(2010); Unkyoung Maeng(2006)
	동기(1)	Ji-Sun Kim & Byung-Bin Im(2009)
	효능감(1)	강성우와 하주영(2005)
중학생 8(13%)	유형(1)	Suh & Kyung Ja Kim (2012)
	전략(3)	모슬기와 김영숙(2009); Jin-Hee Huh(2009); Jung-Soo Lee(2011)
	동기(4)	Eun Suk Choi & Mun-Koo Kang(2013); Kyung Ja Kim(2009); Yoon-Kyoung Kim & Tae-Young Kim(2012); Hae-Soon Park(2006)
고등학생 10(16%)	유형(1)	Jung-Hwan Park 외(2005)
	전략(5)	김낙복(2005); 김영은(2008); Yuah Chon & You-Hee Kim(2011); Shameem(2002); Kyounghwa Yong(2009);
	동기(3)	심순희(2005); Yuah Chon & Hyungshim Jang(2013); Kyung Ja Kim(2012)
	태도(1)	송명석(2001)
대학생 이상 35(57%)	유형(1)	Kyung Ja Kim(2007)
	전략(15)	나경희와 이선(2005); 이정아(2009); 최경희(2003); Hyung-ji Chang(2012); Cheongsook Chin(2008, 2009); Yuah Chon(2009); Moon-Young Chun(2013); Sungwoo Kang(1999; 2001); Ji-Sun Kim(2011); Eun-Hee Lee(2010); Sujung Min(2009); Hyeson Park(2013); Jaehwang Shim(2009)
	불안(4)	김보민과 김해동(2010); 김성중(2007); Youngsang Kim(2002); Soo-Jeong Shin(2003)
	동기(10)	김영숙과 이지연(2008); 남정미(2011); 방희정과 임병빈(2013); 이일연(2002); Jeong-Yeon Kim(2011); Kyung Ja Kim(2008); Moon-Bok Lee(2005); Jee Hyun Ma & Huang(2013); Eun-Mi Yang(2009; 2011)
	태도(3)	김나연과 이은주(2009); 전재영(2004); Mae-Ran Park(2006)
	기타(2)	신념: Kyung Ja Kim(2006); 감정: Eunsil Lee(2008)

2) 중학생 대상 연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8편(13%)으로 초등학생 대상 연구보다는 많지만 타 연령대에 비하여 여전히 높지 않은 비율이다. 더구나 이 중 3편은 중학생 외에 고등학생이 함께 연구 대상으로 참여하였다. 연구 주제는 학습 전략(3편)과 유형(1편), 동기(4편)로 초등학생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연구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주제가 다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는 Hae-Soon Park(2006)의 혼합연구와 Eun Suk Choi와 Mun-Koo Kang(2013)의 질적 연구를 제외하면 6편 모두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6편의 논문의 자료수집 방법을 고찰해보면 비교적 긴 시간에 걸친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나 조사할 내용의 설문문항을 직접 개발하는 개발연구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어야 하는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인지적 · 정의적 연구 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고등학생 대상 연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10편(16%)으로 학습 유형(1편)과 태도(1편)로 분류된 연구를 제외하면 모두 학습 전략(5편)과 동기(3편)에 대한 연구이다. 또한 학습 유형으로 분류된 연구(Jung-Hwan Park, Gun-In Lee, & Myung-Seon Kang, 2005)도 어휘학습 전략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학습 전략에 관한 논문이 과반을 넘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대학 입학 시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영어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전략 훈련 및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말레이시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략 연구(Shameem, 2002)를 제외한 4편의 한국 고등학생 대상 연구 논문들이 어휘 전략(김낙복, 2005; 김영은, 2008; Yuah Chon & You-Hee Kim, 2011)과 읽기 전략(Kyounghwa Yong, 2009)를 고찰하고 있어 고등학교 학습자에게 어휘와 독해 수행 전략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Shameem의 질적(분석)연구를 제외한 9편이 양적 연구로 상관연구 5편, 실험연구 3편, 조사연구 1편으로 전략 훈련과 사용 및 동기와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9편의 양적 연구 자료 수집 방법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의 설문기법을 활용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설문기법을 활용한 연구 중 3편의 실험연구(김낙복, 2005; 송명석, 2001; Jung-Hwan Park 외, 2005)들은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교육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 대학생 이상의 성인 대상 연구

대학생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35편(57%)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총 논문의 과반을 차지하였다. 김보민과 김해동(2010)의 언어 불안감에 관한 연구에는 초 · 중 · 고 · 대학생과 초 · 중 · 고 · 대학의 교사와 강사가 참여하였으나 교사와 대학강사의 비율이 가장 높아 대학생 이상의 성인 대상 연구로 분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하였다. 이처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것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영어 교육 연구자가 편의적 표본 추출(convenient sampling) 방식으로 연구 대상을 쉽게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에 비하여 대학생은 언어 및 인지 능력이 높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연구 도구 선정을 포함한 연구 방법론 선택의 폭이 넓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인 6개의 범주가 모두 관찰되었고 전체 61편의 논문이 전반적으로 학습 전략과 동기에 관한 연구가 많듯이 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전략(15편)과 동기(10편)에 관한 연구가 71%를 차지하였다. 그 외 불안(4편), 태도(3편), 학습 유형(1편), 기타(2편: 신념, 감정)로 분류된 연구들이 관찰되었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 양적(23편), 질적(9편), 혼합(3편)연구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였다. 불안에 관한 연구는 4편 모두 질적(3편) 또는 혼합(1편)연구 방법으로 학습자 및 교사의 외국어 불안 요소를 설문조사법에 의거한 통계적 추론이 아닌 인터뷰기법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의 언어 불안 요인을 심도 있게 고찰하려 했다는 시도가 무척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분석연구(11편), 상관연구(13편), 조사연구(5편), 실험연구(5편), 개발연구(1편)로 연구 유형의 다양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적 연구(66%)의 대부분이 연구도구를 개발하기보다는 선행연구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 주제별 분류

표 3은 분석 대상인 61편의 인지적·정의적 변인에 대한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한 것이다. 6개의 주제 범주 가운데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학습 전략과 동기에 대해서는 각각에 하위 주제를 두어 학습 전략과 동기가 주로 어떤 변인들과 함께 연구되었는지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1) 영어 학습 유형에 대한 연구

여섯 가지 지각적 학습 유형을 밝히고자 한 Kyung Ja Kim(2007)의 연구와 Suh와 Kyung Ja Kim(2012)의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주제가 동일한 만큼이나 동일한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전자의 피험자 집단은 대학생이었고, 학습 유형과 영어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반면에 후자의 연구 대상은 중학생이었으며 연구 도구를 개발한 Reid(1987)의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Jung-Hwan Park 외(2005)는 웹기반 어휘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인지 유형보다는 어휘 전략이 어휘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3

연구 주제별 분류

상위주제 (논문 수)	하위주제 (논문 수)	연구
학습유형 3(5%)		Kyung Ja Kim(2007); Suh & Kyung Ja Kim (2012); Jung-Hwan Park 외(2005)
학습전략 26(43%)	어휘(4)	김낙복(2005); 김영은(2008); Yuah Chon & You-Hee Kim(2011); Jin-Hee Huh(2009)
	듣기(4)	이정아(2009); Ji-Sun Kim(2011); Jung-Soo Lee(2011); Unkyoung Maeng(2006)
	읽기(10)	나경희와 이선(2005); 모슬기와 김영숙(2009); 이혜원과 임희정(2012); 최경희(2003); Hyung-ji Chang(2012); Cheongsook Chin(2008, 2009); Kyung-Bin Im(2010); Hyeson Park(2013); Kyounghwa Yong(2009)
	쓰기(1)	Yuah Chon(2009)
	의사소통(5)	Moon-Young Chun(2013); Eun-Hee Lee(2010); Sujung Min(2009); Shameem(2002); Jaehwang Shim(2009)
	성취도(2)	Sungwoo Kang(1999; 2001)
불안 5(8%)		김보민과 김해동(2010); 김성중(2007); Youngsang Kim(2002, 2005); Soo-Jeong Shin(2003)
동기 19(31%)	어휘(2)	Yuah Chon & Hyungshim Jang(2013); Jee Hyun Ma & Huang(2013)
	듣기(2)	방희정과 임병빈(2013); Eun-Mi Yang(2011)
	독해(4)	Eun Suk Choi & Mun-Koo Kang(2013); Ji-Sun Kim & Byung-Bin Im(2009); Kyung Ja Kim(2008); Eun-Mi Yang(2009)
	CALL(2)	Kyungsun Han(2005); Jeong-Yeon Kim(2011)
	동기저하(2)	Kyung Ja Kim(2009, 2012)
	전략(2)	이일연(2002); Moon-Bok Lee(2005)
	성취도(2)	남정미(2011); 심순희(2005)
	기타(3)	영어전용공간: 김영숙과 이지연(2008); EFL 환경: Hae-Soon Park(2006); 동기화된 행동: Yoon-Kyoung Kim & Tae-Young Kim(2012)
태도 4(7%)		김나연과 이은주(2009); 송명석(2001); 전재영(2004); Mae-Ran Park(2006)
기타 4(7%)		강성우와 하주영(2005); 정미영(1995); Kyung Ja Kim(2006); Eunsil Lee(2008)

2)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한 26편의 논문들은 어휘 · 듣기 · 읽기 · 쓰기 ·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과 관련 영어 능력 숙달도에 관한 관계를 고찰한 연구(24편)와 전반적인 영어 학습 전략과 영어 성취도와의 인과관계(2편)를 규명한 연구로 재 분류될 수 있다. 김낙복(2005)은 연어 중심의 어휘 학습 집단이 단어 목록 중심 어휘 학습 집단에 비하여 어휘 학습 전략을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였으며, 정의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어휘 전략과 어휘 능숙도의 관계를 고찰한 3편의 연구는 대상과 결과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김영은(2008)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독해 수행에 역할이 큰 산출적 어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지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어휘 학습 전략을 고찰하였고, Yuah Chon과 You-Hee Kim(2011)은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어휘 발견, 강화 전략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Jin-Hee Huh(2009)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어휘 전략과 그렇지 않은 전략을 구분하였다.

듣기 전략에 관한 논문은 초·중·대학생의 듣기 전략을 고찰하고 듣기 능숙도와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3편의 연구(Ji-Sun Kim, 2011; Jung-Soo Lee, 2011; Unkyoung Maeng, 2006)가 전략과 듣기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일원량분석, 다변량 분석,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한 반면, 이정아(2009)는 구조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방법으로 동기와 듣기 전략 사용간의 직접적인 원인-결과 관계를 규명하였다.

학습 전략 하위 주제로,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어 읽기 관련 논문이 10편(1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의 경향은 사례연구, 담화분석, 생각 말하기(think-aloud) 기법으로 실제 읽기 과정 중의 독해 전략 사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고찰하려는 시도(4편)와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략 사용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여 학습 유형 또는 읽기 수행 결과에 대한 전략의 역할 또는 둘의 상관성을 고찰하려는 시도(6편)로 요약될 수 있다.

나경희와 이선(2005)은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전이되는 독해과정을 분석하여 상호작용 읽기 전략의 효용성을 고찰하였으며, Cheongsook Chin(2009)은 텍스트 변인이 독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고, 최경희(2003)는 사회감정전략을 이용한 독해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교실 내 학습자간의 의미협상 과정 분석을 시도하였다.

독해 전략과 학습자 변인과의 연관성을 고찰한 양적 연구에서 모슬기와 김영숙(2009)은 학습자의 성격 유형보다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에 따라 독해 전략의 사용에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독해 전략과 읽기 능숙도의 상관성을 고찰한 연구에서 Cheongsook Chin(2008)은 읽기 수준에 따라 독해 전략의 사용이 다르며 상위 수준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위 수준의 학습자는 교사, 동료, 사전을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상위 수준의 학습자가 실제 평가 상황에서도 더 많은 인지·초인지 독해 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Kyounghwa Yong, 2009). Hyeson Park(2013)은 제1 언어 독서 경험이 영어 읽기 전략 사용 여부의 변인이었고, 특히 하위 수준의 영어 학습자는 제1 언어로 번역하는 전략을 가장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독해 전략 훈련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이혜원과 임희정(2012)은 영어 학습 부진이의 읽기 능력과 흥미, 자신감, 학습불안의 정의적 영역 향상 결과를 보고하였고, Hyung-ji Chang(2012)은 대학생의 간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쓰기 전략에 관한 연구는 단 1편이 관찰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총 61편의 논문 중 쓰기에 관련한 논문은 동기와 쓰기 성취도를 고찰한 연구(Jeong-Yeon Kim, 2011), 오류수정 피드백 유형과 태도에 관한 연구(전재영,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004)를 포함하여 총 3편(5%)에 불과하다. 초 · 중 · 고등학생의 영어 능력에 대한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서술형 평가가 도입되었고, 대학생은 이미 학업 평가와 취업 현장에서 영어 쓰기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므로 학습자의 인지 · 정의적 변인과 관련한 쓰기 영역의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과(apology), 회피, 의미 협상과 같은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연구로 5편이 관찰되었다. Moon-Young Chun(2013)과 Jaehwang Shim(2009)은 담화완성 검사지(discourse completion test)를 사용하여 사과 전략을 고찰하였다. Moon-Young Chun(2013)은 한국인이 영어 원어민보다 사과 전략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국인이 계급제도, 집단주의, 문맥을 중시하는 의사소통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Jaehwang Shim(2009)은 사과 양식의 능력(stylistic competence) 측면에서 남자 대학생은 여대생보다 공식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고, 여대생은 비공식적인 사과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Sujung Min(2009)은 웹기반 상호작용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영어 학습자사이의 의미 협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담화 전략을 고찰하였고, Shameem(2002)은 말레이시아 고등학생들의 영어 담화 전략으로 구두 신호(verbal signal)의 역할과 기능을 보고하였다. Eun-Hee Lee(2010)는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관사 사용 전략 비교에서 영어 활용 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회피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Sungwoo Kang(1999)은 한국, 일본, 타이완 대학생의 영어 학습 전략과 전반적인 영어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SEM을 이용하여 9개의 학습 전략 요인과 영어 듣기, 문법-독해 능력과의 인과관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Sungwoo Kang(2001)은 자신이 앞서 개발한 영어 학습 전략과 성취도 모형을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3) 영어 불안감에 대한 연구

불안감에 대한 연구는 문헌연구 1편, 질적(분석)연구 3편, 혼합(분석)연구 1편으로 총 5편이다. 불안이라는 개념이 제2 언어 습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의적 요인이지만, 그 개념을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Brown, 2007). 개념화하기 어려운 감정 요인을 설문기법을 활용하여 피험자를 통해 측정해 내기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므로 보다 심도 있는 자료 수집과 분석, 해석을 위해 인터뷰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Youngsang Kim(2002)은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학습 과업 수행에 대한 불안, 문화적 이해의 어려움에 의한 불안, 교수자에 의한 불안을 대학생의 언어 불안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김성중(2007)은 제2 언어 의사소통 긴장감은 자신감을 저하시켜 의사소통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대학생 인터뷰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Youngsang Kim(2005)은 문헌연구에서 외국어 학습 불안감에 대한 다양한 연구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결과,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Soo-Jeong Shin은 교사의 신념과 역할 가설에 따라 학습자의 불안감 관리가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보민과 김해동(2010)은 학습자들은 정의적인 측면, 언어와 지식과 관련된 측면, 시험과 관련된 측면 중에서 정의적 측면이 불안감 조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교사는 학습자가 언어와 관련해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4) 영어 학습동기에 대한 연구

영어 학습동기로 분류된 19편의 논문은 8개의 하위주제로 재분류되었다. 이는 동기가 정의적 변인으로써 매우 중요하고 많은 연구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기타로 분류된 3편의 논문은 관련 주제에 대하여 각각 1편씩만 관찰된 연구들이다.

동기와 어휘 학습 관련 연구에서 Yuah Chon과 Hyungshim Jang(2013), Jee Hyun Ma와 Huang(2013)는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Ryan & Deci, 2000)에 기반한 동기 요인과 어휘크기, 자율성(autonomy)과 전략 사용을 각각 측정하였다. Chon과 Jang은 외재 동기 중에서 자율성과 내재화 정도가 가장 높은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동기가 고등학생의 수용적 어휘지식의 유의미한 예측 요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Ma와 Huang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의 실험연구에서 내재 동기만이 제2 언어 어휘 전략 사용 능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대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와 듣기 성취도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도출한 Eun-Mi Yang(2011)은 자기결정이론(Ryan & Deci, 2000)의 동기 요인과 제2 언어 학습 동기 자기 체계(L2 motivational self system, Dörnyei, 2009)의 교차검토를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론적인 차이로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는 어려우나 유의미한 시도로 여겨진다. 방희정과 임병빈(2013)은 소집단 협동학습을 활용한 실험연구에서 동기는 대학생의 영어 듣기 능력에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독해 동기에 관한 연구는 총 4편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 1편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1편, 대학생 대상의 양적 연구 2편이 관찰되었다. Ji-Sun Kim과 Byung-Bin Im(2009)은 영어동화책을 활용한 실험 집단의 영어 읽기와 쓰기 능력 및 동기와 같은 태도 변인이 영어 교과서만을 사용한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Eun Suk Choi와 Mun-Koo Kang(2013)은 중학생의 독해 동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사와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Kyung Ja Kim(2008)은 대학생의 독해 동기 요인은 영어 읽기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것이며, 내재적 동기와 읽기 능력 자기 평가 점수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내재적 동기의 효용성은 Eun-Mi Yang(2009)의 연구에서도 검증되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외국어 학습 동기와 컴퓨터기반 언어 학습(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CALL)에 관한 논문은 문헌연구와 상관연구 각각 1편씩이다. Kyungsun Han (2005)은 CALL이 어떻게 외국어 학습 동기를 촉진하는지 사회적, 인지적, 정의적 관점에서 선행연구 결과들을 조명하였다. Jeong-Yeon Kim(2011)은 온라인-오프라인 혼합된 영어 쓰기 수업에서의 동기와 사회 문맥적 요인(영어 원어민 교수, 한국인 교수, 몰입수업 등)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여 내재적 동기의 효용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Kyung Ja Kim(2009, 2012)은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 학습 동기저하 요인의 규명을 시도하였다. 2009년의 연구에서 영어 학습의 어려움과 수업과 평가 체제에 대한 불만족이 동기저하의 중요 요인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2년에는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의 동기저하 요인과 영어 성적과의 인과관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동기저하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상관분석에 그치는데 비하여 동기저하 인과관계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성과가 있겠으나, 설문조사 기법으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출된 동기저하 요인들과 문항들이 한국의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의 실제적인 동기저하의 경향성을 반영한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의적 요인인 동기와 인지적 요인인 전략을 함께 연구한 논문은 상관연구 2편이다. 이일연(2002)은 대학생의 통합적 동기와 동기 강도가 모든 학습 전략 요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Moon-Bok Lee(2005)도 대학생의 학습 전략 사용에 있어 도구적 동기보다는 통합적 동기의 효용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심순희(2005)는 고등학생의 동기, 불안감, 자신감, 태도 등의 정의적 변인이 영어 성적에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남정미(2011)는 정의적 요인이 대학생의 영어 성취도를 설명하는 능력(power)이 미약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보다는 R^2만을 제시하여 실제 분석 결과가 정의적 요인의 영어 성취도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를 알 수 없음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동기와 관련된 기타 주제로 김영숙과 이지연(2008)의 대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와 의사소통의지 및 영어전용공간 활용 여부와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와 Hae-Soon Park(2006)의 EFL 교육 환경에 있는 중학생의 동기와 태도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 Yoon-Kyoung Kim과 Tae-Young Kim(2012)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Gardner(1985)의 사회교육적 동기 요인과 Dörnyei(2009)의 제 2언어 학습 동기 자기 체계 요인과의 교차 검토를 시도하였다.

5) 영어 학습태도에 대한 연구

태도에 관한 연구로 피드백에 관한 2편의 논문과 전자사전 사용과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논문 각각 1편씩이 관찰되었다. 김나연과 이은주(2009)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학생의 말하기 수업 관찰을 통하여 명시적 수정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비율이 높아 명시적 수정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웹기반 피드백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전재영(2004)은 교사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이 대학생의 영작문 능력 향상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영작문 지도 시 동료 피드백을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Mae-Ran Park(2006)은 전자사전 사용 훈련을 받은 대학생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전자사전 사용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송명석(2001)은 소집단 중심 협동 학습으로 학습자 중심 수업을 받은 고등학생 실험집단이 교사 중심의 전통적 수업을 받은 통제집단보다 진정한 발견 학습을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이끌어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6) 기타

영어어문교육 창간호에 실린 정미영(1995)의 연구는 학습자의 정의적인 요인이 학습 성패와 관련하여 중요하므로 정의적 원리를 염두에 둔 학습지도를 위한 교사의 제 역할을 강조하였다. 강성우와 하주영(2005)은 보충지도가 초등학생에게 성취경험을 주어 성취와 노력과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Kyung Ja Kim(2006)은 대학생과 영어 교수의 영어 학습에 대한 신념 요인을 규명하고 차이를 분석하였다. Eunsil Lee(2008)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감정적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고찰하였다.

4. 연구 방법별 분류

표 4 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61 편의 논문을 연구 방법 면에서 분류하였고, 연구 주제의 동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다시 연구 주제로 구분한 것이다. 연구 유형의 분류에 따라 6 개의 범주로 나누어 동향과 성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문헌연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문헌연구에 해당하는 것은 학습 불안(Youngsang Kim, 2005)과 동기(정미영, 1995; Kyungsun Han, 2005)에 관한 3 편(5%)이다. 외국어 학습과 관계 있는 정의적 · 인지적 요인들이 다양하고, 또한 본 연구의 분석 논문의 주제가 학습 전략(26 편, 43%)에 치우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학습 전략이나 다른 연구 주제에 대한 문헌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문헌연구의 결과물은 관련 분야 기여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그 가치가 자칫 폄하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방대한 양의 선행연구 탐색과 정리를 통해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와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조정순과 선효승, 2007). 따라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문헌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4
연구 방법 별 분류

연구유형 (논문 수)	연구주제 (논문 수)	연구
문헌연구 3(5%)	불안(1)	Youngsang Kim(2005)
	동기(2)	정미영(1995); Kyungsun Han(2005)
조사연구 7(11%)	학습유형(1)	Suh & Kyung Ja Kim(2012)
	전략(4)	Cheongsook Chin(2008); Yuah Chon & You-Hee Kim(2011); Moon-Young Chun(2013); Jaehwang Shim(2009)
	동기(1)	Kyung Ja Kim(2008)
	신념(1)	Kyung Ja Kim(2006)
개발연구 2(3%)	동기(1)	Hae-Soon Park(2006)
	태도(1)	김나연과 이은주(2009)
분석연구 14(23%)	전략(8)	나경희와 이선(2005); 최경희(2003); Cheongsook Chin(2009); Yuah Chon(2009); Kyung-Bin Im(2010); Eun-Hee Lee(2010); Sujung Min(2009); Shameem(2002)
	불안(4)	김보민과 김해동(2010); 김성중(2007); Youngsang Kim(2002); Soo-Jeong Shin(2003)
	동기(1)	Eun Suk Choi & Mun-Koo Kang(2013)
	감정(1)	Eunsill Lee(2008)
상관연구 24(39%)	학습유형(1)	Kyung Ja Kim(2007)
	전략(11)	김영은(2008); 모슬기와 김영숙(2009); 이정아(2009); Jin-Hee Huh(2009); Sungwoo Kang(1999, 2001); Ji-Sun Kim(2011); Jung-Soo Lee(2011); Unkyoung Maeng(2006); Hyeson Park(2013); Kyounghwa Yong(2009)
	동기(12)	김영숙과 이지연(2008); 남정미(2011); 심순희(2005); 이일연(2002); Yuah Chon & Hyungshim Jang(2013); Jeong-Yeon Kim(2011); Kyung Ja Kim(2009, 2012); Yoon-Kyoung Kim & Tae-Young Kim(2012); Moon-Bok Lee(2005); Eun-Mi Yang(2009, 2011)
실험연구 11(18%)	학습유형(1)	Jung-Hwan Park 외(2005)
	전략(3)	김낙복(2005); 이혜원과 임희정(2012); Hyung-ji Chang(2012)
	동기(3)	방희정과 임병빈(2013); Jee Hyun Ma & Huang(2013); Ji-Sun Kim & Byung-Bin Im(2009)
	태도(3)	송명석(2001); 전재영(2004); Mae-Ran Park(2006)
	효능감(1)	강성우와 하주영(2005)

2) 조사연구

본 연구에서 조사연구로 분류된 논문은 총 7 편(11%)으로 학습 전략(4 편)과 유형, 동기, 신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7 편 이외에도 문헌연구를 제외한 많은 논문들이 설문지, 인터뷰, 관찰, 시험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연구를 하였으나 조사연구로 분류되지 않은 이유는 조사 외에 다른 연구 방법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유형인 상관관계 고찰, 쓰기 자료나 생각 말하기 자료 분석 등의 결과를 연구의 주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조사연구 논문들의 자료 수집은 주로 설문기법을 활용하였고(Cheongsook Chin, 2008; Yuah Chon & You-Hee Kim, 2011; Kyung Ja Kim, 2006, 2008; Suh & Kyung Ja Kim, 2012),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연구는 담화완성 검사지를 사용하였다(Moon-Young Chun, 2013; Jaehwang Shim, 2009).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연구는 설문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문지가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연구 대상과 연구 배경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연구 방법 또는 결과를 제시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몇몇의 조사연구 논문에는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음이 관찰되었다.

3) 개발연구

문헌연구 3편을 제외한 총 58편의 실증적 연구 중 개발연구로 분류 가능한 것은 2편(3%)이었다. 이는 영어 학습의 인지적 · 정의적 변인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김나연과 이은주(2009)는 말하기 오류수정 피드백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태도를 고찰하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Hae-Soon Park(2006)은 학습자의 동기, 신념, 태도의 유형과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고안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절차와 결과를 포함하여 연구의 절차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의 연구도구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한국의 영어학습 환경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연구도구를 개발하여 실행하는 연구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분석연구

분석연구로 분류된 논문은 학습 전략(8편), 불안(4편), 동기(1편), 감정(1편)을 주제로 한 14편(23%)이 관찰되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주로 인터뷰(김보민과 김해동, 2010; 김성중, 2007; Eun Suk Choi & Mun-Koo Kang, 2013; Eunsill Lee, 2008; Soo-Jeong Shin, 2003)방법이 많이 활용되었고, 관찰일지(나경희와 이선, 2005), 녹음자료(최경희, 2003; Kyung-Bin Im, 2010; Shameem, 2002) 쓰기자료(Eun-Hee Lee, 2010; Sujung Min, 2009), 생각 말하기(Yuah Chon, 2009)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연구로 분류된 여러 논문(eg., Cheongsook Chin, 2009; Youngsang Kim, 2002)들이 자료 수집 방법으로 위에서 분류한 한가지 방법만을 고수하지 않고 설문조사, 인터뷰, 관찰일지를 모두 포함하는 등의 삼각측량법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triangulation)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5) 상관연구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에서 상관연구로 분류된 논문이 24편(39%)으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이는 많은 영어교육 연구자가 영어학습의 성패와 관련하여 인지적 · 정의적 요인의 역할을 규명하여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같은 맥락으로 대표적인 인지적 요인의 하나인 학습 전략(11편)과 정의적 요인의 핵심인 동기(12편)에 관한 상관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 2언어 학습에서 이처럼 인지적 · 정의적 변인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들로 인해 우리는 외국어 학습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고,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교수 설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학습 전략과 동기 외에 다양한 인지적 · 정의적 요인에 대한 광범위한 상관연구가 심층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상관연구는 실험연구와는 다르게 조작된 처치를 하지 않고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 추론에 의하여 상관관계를 추정한다. 따라서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적 기법에 의하여 변인들간의 관계가 인과관계(eg. SEM 분석)로 추론하기도 하고 단지 변인 사이의 관계(eg., 상관분석, 회귀분석)가 있음을 내포하기도 한다. 실증적 연구이며 상관연구로 분류된 논문 24편중 4편(이정아, 2009; Sungwoo Kang, 1999, 2001; Kyung Ja Kim, 2012)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료 분석 방법이 상관분석 또는 회귀분석에 머물러 제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인들간의 유의미하거나 그렇지 않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구조적인 관계를(eg., 원인-결과) 추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하다. 따라서, 유사 주제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각도에서 자료를 분석 · 해석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실험연구

실험연구로 분류된 논문은 11편(18%)이며, 연구 주제는 학습 유형(1편), 전략(3편), 동기(3편), 태도(3편), 자기효능감(1편) 등 다양한 주제가 영어교육의 현장에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대상은 초등학생(3편), 고등학생(3편), 대학생(5편)으로 중학생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분포되어 있었다. 실험을 실행한 기간은 8주에서 길게는 7개월까지 다양하였다. 실험연구의 성과로는 실험을 실시한 후 처치의 효과를 고찰하고 검증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강성우와 하주영(2005)은 초등 보충반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효능감 검사, 성취 평가의 양적 측정 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료와 관찰일지, 학생과 담임 인터뷰, 학생 자기평가의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혜원과 임희정(2012)은 초등 영어 학습 부진아에게 적합한 학습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외에 수업 관찰, 인터뷰, 학습자의 학습 소감문 및 수업녹화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편, 전재영(2004)의 결과를 제외한 모든 실험연구의 결과에서 실험반과 통제반 사이에 또는 사전-사후 측정에서 유의미한 처치의 효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어떤 인지적·정의적 변인을 측정하였든지 간에 영어교육 현장에 실제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실험연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실험연구의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eg., 호손 효과)를 위협하는 연구 환경은 아니었는지, 또한 처치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assumption)으로 시작되는 실험연구 설계로 인해 통제반에 속한 학습자의 학습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등 연구 윤리에 대하여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외국어 학습의 인지적·정의적 변인과 관련한 연구 주제들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의 임의추출법(random sampling)을 활용한 현장 기반 실험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제언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95년-2013년 사이에 *영어어문교육*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 외국어 학습의 인지적·정의적 요인과 관련된 61편의 연구들을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관련 분야의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의 연령 분포 면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학생에 대한 연구의 편중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인지적·정의적으로 미성숙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설계를 하거나 관련 요인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한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 관련 연구 부족과 대학생 편중이라는 결과는 영어 읽기·쓰기 연구의 경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송민종과 임정완, 2010; 조정순과 선효승, 2007). 이는 1997년부터 정규화된 초등영어교육이 시작되었지만 초등영어교육의 이론화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미진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측정하기 쉽진 않지만 초등학생의 인지적·정의적 요인은 그들의 생물학적인 요인(eg., 나이)과 맞물려 제2 언어 습득에 성인보다도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기초 단계인 초등학생이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대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연구대상이 대학생 이상인 연구 35편 중에서 학교교육 외의 일반인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단 1편으로 교사와 대학의 강사를 포함시킨 경우이다(김보민과 김해동, 2010). 따라서 영어학습자로써의 연구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학을 포함한 학교교육 내의 영어 학습자의 전략과 동기는 일반인의 것과 다를 수 있고, 또한 같은 학습자라 하더라도 졸업하고 학교를 떠나 일반인이 되었을 때 영어 학습에 대한 전략과 동기가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에서 인지적 · 정의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 실질적 토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초 · 중 · 고 · 대학생과 일반인을 포함한 장기적인 연구(longitudinal research)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연구의 주제별 분석 결과 학습 전략과 동기 연구에의 편중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전략은 하위주제로 영어 읽기 연구에 집중되었다. 이는 영어 학습 전략과 동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실제 독해 중심의 영어교육 현장에 활용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어 현장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성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인지적 · 정의적 요인에 대한 영어교육 현장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연구 주제의 편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과 주제로 그 연구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가령 글로벌 시대에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영어교육 현장에서도 영어 말하기 능력을 포함한 언어 4기능에 대한 통합 지도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읽기 이외의 다른 언어 기능들에서 인지적 · 정의적 요인의 역할을 다룬 실증적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정한 인지적 · 정의적 요인과 어휘, 듣기, 읽기 등의 제 2언어 능력과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인지적 · 정의적 요인을 고려한 효과적인 어휘 지도, 듣기 지도, 읽기 지도로 연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관련 변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수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들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제 2언어 습득에서 인지적 · 정의적 요인에 관련한 이론의 확장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 주제로 분류된 6개 범주 외의 변인에 대해서도 향후 많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최근 문헌에서 크게 관심을 받는 요인 중 하나는 학습자가 제 2언어로 의사 소통하고자 하거나 또는 피하고자 하는 의지(willingness to communicate, WTC)이다. 한국의 영어 학습자의 WTC가 영어 습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지, 다른 인지적 · 정의적 변인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연구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 방법론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양적 · 질적 연구 방법을 병용한 혼합연구 방법을 사용하거나, 하나의 연구 방법 안에서도 자료 수집과 분석을 다양화한 연구들이 있었다. 또한 초 · 중 · 고 · 대학의 영어교육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실험연구의 결과는 교실 영어교육의 실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것이므로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Ji-Sun Kim과 Byung-Bin Im(2009)이 7개월간의 영어동화 활용 수업이 미치는 읽기, 쓰기, 동기 등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면, 실험기간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5주(대학생의 경우 한 학기)를 넘지 않았고, 단 1회의 사전-사후검사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는 인지적 · 정의적 요인의 변화나 특정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관찰이나 실험연구를 통하여 영어교육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현장 기반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통계 분석 방법을 활용한 정량적 연구가 주류를 이룬 인지적 · 정의적 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그 변인들이 학습자를 대상으로만 측정되어 제 2언어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학습 동기와 영어 성취도의 관계를 규명하여 현장에 적용하려면, 학습자 측면에서의 두 변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변인으로써 교사 변인, 학부모 변인, 교수법 변인, 사회적 변인 등의 상호작용에 대한 변인들이 함께 측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의 인지적 · 정의적 변인에 대한 연구 설계의 확장이 필요하며,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과의 균형을 이루는 연구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범위는 국내 한 개의 학술지에서 출판된 논문 중에서 인지적 · 정의적 변인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였으므로 수많은 학술지의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초등영어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초등영어교육* 이라는 학술지에 실리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내에서 수행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의 인지적 · 정의적 변인에 대한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고찰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3가지 분석기준에 의한 분석 결과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얼마든지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외국어 학습 관련 인지적 · 정의적 변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영어교육 종사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성우, 하주영. (2005). 초등영어과 자기효능감 개선을 위한 보충지도의 효과. *영어어문교육, 11*(4), 139-166.

권오량. (1995). 한국의 영어교수 방법과 교수방법론 연구의 변천. *영어교육, 50*(2), 107-131.

김나연, 이은주. (2009). 대학에서의 영어 말하기 오류수정 피드백과 학습자 반응: 교사와 학습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15*(4), 237-264.

김낙복. (2005). 어휘 지도 방법이 어휘 학습전략 사용과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효과: 학생 설문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11*(3), 89-11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김보민, 김해동. (2010). 언어불안감에 대한 영어 교사와 학습자간의 인식 차이. *영어어문교육, 16*(3), 161-182.
김성중. (2007). 한국 대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긴장감 연구. *영어어문교육, 13*(4), 211-231.
김영숙, 이지연. (2008). 한국 대학생의 영어학습동기, 의사소통의지와 영어전용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영어어문교육, 14*(4), 223-245.
김영은. (2008). 수용적 어휘 지식과 산출적 어휘 지식, 어휘 학습 전략의 관계. *영어어문교육, 14*(3), 283-306.
김정렬. (2001). 초등영어교육 연구 방법의 흐름. *초등영어교육*, 7(2), 38-63.
김진완. (2004). 한국과 세계의 영어교육 연구방법론과 연구내용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과 영어교육 현장에의 시사점. *영어교육, 59*(4), 45-70.
나경희, 이선. (2005). 상호작용 읽기전략을 통해서 본 한국 대학생들의 독해 과정에 관한 연구. *영어어문교육, 11*(4), 209-235.
남정미. (2011). 원어민 영어수업에서 느끼는 학습동기, 불안감, 의사소통 의지와 영어성적과의 관계. *영어어문교육, 17*(2), 139-160.
모슬기, 김영숙. (2009). 한국 중 ·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성격 유형에 따른 영어 독해전략 연구. *영어어문교육, 15*(4), 291-311.
방희정, 임병빈. (2013). 소집단 협동학습이 학습동기와 영어 듣기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영어어문교육, 19*(2), 217-242.
송명석. (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이 영어 학업 성취도와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영어어문교육, 7*(1), 89-111.
송민종, 임정완. (2010). 현대영어교육 학술지 10년 읽기 및 쓰기 관련 연구 회고. *현대영어교육, 11*(2), 60-81.
송희심. (2000). 한국의 영어 읽기교육 연구에 대한 고찰. *영어교육, 55*(4), 367-388.
심순희. (2005).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자 변인과 영어학습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 *영어어문교육, 11*(4), 261-286.
이은주. (2008). 영어교육과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수행된 코퍼스 기반 연구의 분석. *영어교육, 63*(2), 283-306.
이일연. (2002). 동기와 전략으로 본 영어 학습자들의 성향 분석. *영어어문교육, 8*(2), 151-176.
이정아. (2009). 듣기 전략 사용 선호도가 TOEIC 듣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 변인과의 관계. *영어어문교육, 15*(4), 345-364.
이혜원, 임희정. (2012). 읽기 학습 전략 훈련을 통한 초등학교 영어 학습 부진아의 초기 읽기 능력 향상 연구. *영어어문교육, 18*(2), 171-187.
전재영. (2004). 웹기반 피드백 유형이 대학생들의 영작문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영어어문교육, 11*(1), 179-202.
정미영. (1995).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의 정의적 요인과 교사의 역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영어어문교육, 1, 129-157.

조정순, 선효승. (2007). 한국에서의 영어읽기 연구: 경향과 성과. *영어교육, 62*(2), 381-413.

최경희. (2003). 사회감정전략을 이용한 영어독해수업 모형제시를 위한 이론 및 사례연구 분석. *영어어문교육, 9*(특별호), 185-208.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Chang, Hyung-Ji. (2012). Empower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through metacognitive reading strateg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8*(2), 1-20.

Chin, Cheongsook. (2008). Investigations on college EFL readers' awareness, preferences, and learning strategi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3), 1-27.

Chin, Cheongsook. (2009). Case studies in EFL reading: Perceptions, experiences, and strategi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4), 1-22.

Choi, Eun Suk, & Kang, Mun-Koo. (2013). English reading motivation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9*(1), 23-41.

Chon, Yuah V. (2009). Writer's use of lexical retrieval strategies in the L2 writing process of EFL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1), 1-26.

Chon, Yuah V., & Jang, Hyungshim. (2013). Academic motivational orientations and vocabulary size of L2 adolescent learner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9*(2), 25-56.

Chon, Yuah V., & Kim, You-Hee. (2011). Lexical discovery and consolidation strategies of proficient and less proficient EFL vocational high school learner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7*(3), 27-56.

Chun, Moon-Young. (2013). Apology strategies used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9*(1), 67-88.

Dörnyei, Z. (2009).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In Z. Dörnyei & E.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pp. 9-42). Toronto: Multilingual Matters.

Ellis, R. (1994). *A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ardner, R. C. (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s and motivation.* London: Edward Arnold.

Han, Kyungsun. (2005). L2 learning motivation in technology enhanced instruction: A survey from three perspectiv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1*(1), 17-36.

Huh, Jin-Hee. (2009). Vocabulary learning strategy use and vocabulary proficienc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4), 37-54.

Im, Kyung-Bin. (2010). An analysis of supportive strategies in shared reading using an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English stor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2), 45-72.

Johnson, D. M. (1992). *Approaches to research in second language learning.* New York, NY: Longman.

Kang, Sungwoo. (1999). Relationships between the use of ESL learning strategies and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of Asian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5,* 1-25.

Kang, Sungwoo. (2001). Examining generalizability of Kang's (1999) model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ESL learning strategy use and language proficienc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7*(2), 55-75.

Kim, Jeong-Yeon. (2011). Relationship among motivation, social factors and achievement in on-offline blended English writing clas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7*(4), 97-121.

Kim, Ji-Sun. (2011). Korean EFL learners' listening anxiety, listening strategy use, and listening proficienc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7*(1), 101-124.

Kim, Ji-Sun, & Im, Byung-Bin. (2009). Effect of using English storybooks for improving Korean English learners' reading and writing skills and their learning attitudinal factor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1), 71-98.

Kim, Kyung Ja. (2006). The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of Korean college students and their teachers of Englis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3), 1-24.

Kim, Kyung Ja. (2007). Predicting English achievement using learning styles of Korean EFL college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3*(1), 27-46.

Kim, Kyung Ja. (2008). Motivation to read in EFL college classroom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3), 95-113.

Kim, Kyung Ja. (2009). A comparative analysis of demotivation in secondary English class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4), 75-94.

Kim, Kyung Ja. (2012).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demotivational factors and English achievement for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8*(4), 71-92.

Kim, Yoon-Kyoung, & Kim, Tae-Young. (2012). Korean secondary school students' L2 learning motivation: Comparing L2 motivational self system with socio-educational model.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8*(1), 115-132.

Kim, Youngsang. (2005). Toward a conceptual clarification of foreign language anxiet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1*(4), 1-20.

Kim, Young-Sang. (2002). A qualitative inquiry into EFL anxiety: Through the voices of class constitu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8*(1), 15-38.

Lee, Eunsil. (2008). Emotional issues in language learning: A case study of Korean female students in short term study abroad.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2), 131-14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Lee, Eun-Hee. (2010). Avoidance strategy usage of English articl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3), 101-117.

Lee, Jung-Soo. (2011). Listening strategy use of Korean EFL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7*(1), 165-190.

Lee, Moon-Bok. (2005). An investigation into the effects of integrative and instrumental orientations on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1*(1), 37-55.

Ma, Jee Hyun, & Huang, H-T. (2013). The relationships of learning strategy instruction, autonomy, and motivation in L2 vocabulary learnin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9*(1), 177-201.

Maeng, Unkyoung. (2006). The use of listening strategies among Korean elementary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3), 25-49.

Min, Sujung. (2009). The effect of contextual knowledge on EFL learners' participation i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2), 209-224.

Myers, I. B. (1962).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O'Malley, J. M., & Chamot, A. U. (1990).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Boston, MA: Heinle & Heinle.

Park, Hae-Soon. (2006). EFL context and learners' affective factors in Korean secondary educa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1), 55-75.

Park, Hyeson. (2013). Metacognitive awareness of reading strategi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9*(2), 155-172.

Park, Jung-Hwan, Lee, Gun-In, & Kang, Myung-Seon. (2005). The effects of cognitive style and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on students' achievement in web-based learnin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1*(4), 21-47.

Park, Mae-Ran. (2006). EFL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toward the use of electronic dictionari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1), 29-54.

Reid, J. M. (1987). The learning style preferences of ESL students. *TESOL Quarterly, 21,* 87-111.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Shameem, R-G. (2002). The use of gambits in the English language classroom.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8*(1), 85-101.

Shim, Jaehwang. (2009). A study of apology strategies between genders in EFL college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2), 225-24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Shin, Soo-Jeong. (2003). The teacher's perspectives on students' language anxiet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9*(1), 67-82.

Suh, E., Kim, & Kyung Ja. (2012). Examining the perceptual learning style preferences of Korean EFL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8*(1), 217-235.

Yang, Eun-Mi. (2009). Korean EFL learners' reading motivation and their L2 reading behavior.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4), 217-235.

Yang, Eun-Mi. (2011). Korean college stude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listening proficienc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7*(2), 93-114.

Yong, Kyounghwa. (2009). An investigation of cognitive and metacognitive strategy use in EFL reading comprehension test performance: Focused on trait strategy use vs. state strategy us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3), 249-282.

예시언어(Examples in): 영어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영어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전체

김경자
조선대학교 영어교육과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Tel: (062) 230-6994
Email: kyung9@chosun.ac.kr

Received in January 15th, 2014
Reviewed in February 26th, 2014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rch 5th, 201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